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요지>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에 오부치(小渕)수상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서명됐으며, 한일 양국민간의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 확충에 관한 중요성이 제시되어있다. 분명히 한일공동선언 이후, 한일 관계는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크게 진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화·인적 교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한일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특히 일본의 시점에서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사례로 영화·드라마·K팝을 고찰함으로써 한일간의 문화·인적 분야의 교류가 어떻게 진전하였으며, 또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영화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확산을 보인 작품은 한일공동선언 후이자 일본에서 한류가 일어나기 전인 2000년 1월에 개봉된 “쉬리”다. 그 후 2001년에 개봉된 “JSA”의 히트 이후에는 한동안 히트작품은 없었다. 2004년 이후에 “겨울연가”가 계기가 된 일본에서의 한류 이후 2006년까지 몇몇의 히트작품은 등장했으나 2007년 이후 히트영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영화는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 있어서 초기에는 크게 기여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2004년에 NHK에서 방송된 “겨울연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드라마는 바로 한류의 중심이었다. 이 “겨울연가”의 인기 이후, 민영방송 각사에서도 한국드라마를 방송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드라마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시간대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05년 9월에는, 일시적으로 니혼TV(日本テレビ)와 후지TV(フジテレビ)의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가 종료했으며, NHK종합 텔레비전의 한국드라마 시간대도 2007년 9월에 일시 방송을 중지하면서 방송 작품 수, 방송시간은 감소했다. 2010년에는 TBS와 후지TV에서 새로 한국드라마 전용 시간대가 마련되어, 한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은 늘어났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후지TV, 2014년 3월에 TBS의 한국드라마 전문 시간대는 종료했다. 2015년 8월 현재에는 TV도쿄에서 시작한 한국드라마 전용시간대인 한류 프리미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뿐이다.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분야의 교류의 진전이라는 시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배용준의 지명도가 방송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시점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을 보면 “겨울연가”의 임팩트는 컸다. 또한 “겨울연가” 이후 작품 수나 방송시간의 추이는 있지만, 지상파에서 한국드라마는 일관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영화 등의 매체와 비교하여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문화·인적 분야에서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틀림 없다.

음악·K팝의 분야는 일본 내의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도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 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였다. 그러나 한류 이후 음악 분야에서도 한국인 가수가 다수의 히트곡을 내기 시작했다. 랭킹에 들어간 한국인 가수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배우를 주 활동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곡을 낸 한류드라마형. 한국에서 가수로 주로 활동하며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가수로써 진출하여 한일 거의 동시기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일동시활동형. 그리고 이 두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이다. 각각 일본에서 히트하고 있는 시기를 보면, 한류드라마 형은 2005년~2008년 즈음이 정점인 것에 비해, 한일동시활동 형은 주로 2008년 이후에 정점을 맞이하여 최근에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후 일본인의 대한 친근감을 급격히 악화했지만, K팝의 인기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문화·인적 교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태까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 한류는 중고년 여성이 팬 층의 중심이었지만, K팝, 특히 한일동시활동 형은 팬의 중심 층이 10~20대이며 일본에서의 한국대중문화의 수용 층을 확대하는 데에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보면, 2012년 이후 친근감을 전 세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20

대에서는 7.5%만 감소했으며,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다. 앞서 본 것처럼, K팝의 인기가 2012년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특히 한일동시활동형은 편의 중심 층이 10~20대인 점을 생각하면, K팝이라는 문화관계가 일본의 한국을 향한 친근감의 저하 억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의 과제나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한일 양국민은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 정치적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1. 현재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감소에 비하여,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의 감소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 2. 앞서 본 것처럼, K팝이라는 문화관계가 일본의 한국을 향한 친근감 의 저하억제에 기여했다고는 해도, K팝, 특히 한일동시활동 형은 팬의 중심 층을 이루는 20대에서 친근감의 감소가 소폭에 그쳤다는 점. 3. 한일 양국민이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 이상의 3점을 보면, 문화적 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드시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오카미 히로시(岡見浩史)

1. 문제의 소재

일본과 한국은 오랜 시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왔다. 이는 오랜 우호적인 역사 후의 근대 이후 사건에 기인한다. 오늘날까지의 한일관계를 볼 때[1] 사람의 세대변화가 일어나는 약 30년의 주기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관계성이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근세까지의 한일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무관세특권을 승인하게 한 강화도조약까지 연결되는 1875년 강화도 사건부터 1910년 한국병합까지의 35년간을 "식민지화 준비기". 1910년부터 1945년의 일본 패전·조선의 광복까지의 35년간을 "한국 병합기". 1945년에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조인까지의 20년간을 "한국 독립 후 대립기". 1965년에서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하 한일 공동선언이라 표기)의 서명까지의 33년간을 "관계 모색기". 그리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를 "한일 파트너십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큰 흐름을 보면 메이지 시대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조선의 개화파에 기대를 하고 좌절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체제를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를 거쳐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와 인건의 존중·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체제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2]. 즉, 일본은 근대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갖게 된 것이다. 이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듯, 한일공동선언 이후 일본에서도 한국영화의 몇몇 작품이 호평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한국드라마 "겨울연가"가 NHK에서 방영된 이후에 "한류" 붐이 일어났다. 그 후 K팝의 붐이 일어나 한일

양국은 시민 레벨에서는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 레벨에서는 2012년 즈음부터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이 고조되어 아래에 보는 것처럼 일본인의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2012년 이후에 급격히 악화하여 개선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현대 한일관계 및 한국에 관련하는 연구는 정치학의 분야에서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연구에는 남북한의 정통성 논쟁을 일본에 가져온 운동론적인 연구나, 반유신체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많다[3]. 또한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관계에서 한일관계를 “유사동맹”으로 파악한 연구[4]나 한일국교정성화 교섭에 대한 연구 등에서 업적이 있다[5].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일관계 시대구분에 있어서도 중요시되고 있는 한일공동선언에 의한 변화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풍부한 상황은 아니며, 저널리즘에 의한 분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에 도쿄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수상과 김대중대통령 사이에서 서명되었으며 선언과 부속서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한일공동선언의 10에 “여러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양국 국민의 깊은 상호이해화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 하에서 양국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 해갈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했다”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민 간의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의 확충의 중요성이 제시되어있다. 분명히 한일공동선언이 서명된 이후 한일관계는 문화·인적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 크게 진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화·인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한일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특히 일본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의 사례로 영화·드라마·K팝을 고찰함으로써 한일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어떻게 진전하여 또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한일 공동선언의 의의와 평가

한일공동선언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선언 2에 있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사죄 부분이다.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표현을 답습한 표현이지만 이 선언에 의해 일본측은 “한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상대를 명시하여 이국간의 정식적인 외교문서에서 처음으로 사죄를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 점은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회복한 한일기본조약에서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인 것을 확인한다”고만 언급하여 사죄의 문언을 외교문서 안에 일제히 포함하지 않았던 점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역사인식의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드려 이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일공동선언은 종군위안부 문제나 창시개명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제로 남아있던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여,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새로이 파트너로 규정을 했기에 한일기본조약에 필적하는 역사적 임팩트가 있는 문서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죄 다음으로 선언 3에서 한국 측이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삼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본이 완수해온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인 한국인의 심정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내용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측의 사죄를 받은 한국 측 자세는, 한일공동선언 서명 전날, 황거(皇居)에서 행해진 만찬회에서 천황의 “말씀”에 대한 답사 중에서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 상징 천황의 입장을 배려하여[6] 일본에 온 한국 대통령의 만찬회 연설로는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 등 과거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도 나타난다.

그 후 2001년 7월에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국회가 한일공동선언 파기를 포함하여 대일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7]. 그러나 결의가 채택된 후 한국의 이한동 수상은 국회에서 “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일본정부가 이 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여 한국정부는 공동선언을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8]. 이 국회결의에 의해 한일공동선언이 무효화 되지 않은 것은 2003년 6월에 발표한 “한일 정상 공동성명－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시대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일 공동선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확하다.

3.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사례

3.1. 한국대중문화의 확산과 한류

“한류”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범위가 확산 돼버린 단어다. 이 “한류” 현상과 명칭은 대만에서 발상했으며 2001년 즈음부터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유행을 대만 언론이 “韓流正強、日頭又烈”(한국 붐이 겨울 한파와 같이 강하며, 일본에서부터의 햇살에도 강하게 노출되었다는 뜻)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韓流”와 발음이 비슷한 “寒流(한파)”에 음을 맞춘 언어유희라고 한다[9]. “한류”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양욱명(梁旭明)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K팝, 패션, 화장법, 액세서리부터 전기제품, 휴대전화, 차[10]”라고 예시하는 것처럼 비교적 넓은 범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잡지 등의 용법을 보면 예를 들어 “한류 커플”이나 “한류 과학자”와 같은 용법도 있어 “한국의”와 같이 소유격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진다[11]. 본 논문에서는 한류를 “2000년대 이후에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드라마·영화·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라고 정의하여, 특히 중심적으로 취급하는 일본에서의 한류에 관해서는 “2004년 4월부터 NHK 종합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히트 이후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왜 한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 사회학의 시점에서 접근하는 분석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다채널화, 글로벌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간접체험 하게 되어 동아시아적 공감의 영역이 증가한 사실, 각본이나 촬영 완성 전에 방송이 시작돼, 이후 시청자 의견에 따라 스토리가 변화하는 다이나믹함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12]. 또한 정치학적 시점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주로 다음과 같이 3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번째로 박정희나 전두환에 의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미디어에 대해 검열이 실시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었었지만,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한 것[13]. 두 번째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파급된 결과,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대중문화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장려정책을 취한 것[14]. 세 번째로 한국에서 공적인 루트로 일본대중문화가 유입되는 것이 금지돼있었기에 한국의 문화생산자 중에서는 일본의 문화상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표절·모방”하는 사람이 있었으나[15] 한일공동선언 이후, 일본대중문화는 단계적으로 개방되어, 또한 한국의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시청자가 원작을 찾아 비판을 교환하는 회로가 증가했기에 한국 사회가 “표절·모방”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점[16]. 이상의 3점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에 의해 동아시아에서의 한류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이 장에서는 영화·드라마·K팝을 구체적인 예로 한일공동선언 이후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한국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봐나가도록 한다. 더구나 원칙으로 한국 대중문화는 그 출연자·가수 등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재일교포의 작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3.2.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사례

3.2.1. 영화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 최초로 수입된 한국 영화는 1962년에 개봉된 “춘향전”(신상옥, 1961)이었다. 1980년에는 한국문화원이 정기적으로 한국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한국 영화라고 하면 주로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코리안 에로스”의 코너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 장르의 대표작으로는 “뽕”(이두용, 1985년)을 들 수 있다[17]. 그리고 1986년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있어 한국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소개될 기회도 늘어났다[18]. 그 중에서도 특히 1992년에 도쿄국제영화제의 그랑프리,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한 “하얀 전쟁”(정지영, 1992)은 주목 될 만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국 영화는 소형영화관이나 “단관”에서의 상영이 주류여서 대중적인 확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19].

일본에서 최초로 대중적인 확산을 보인 한국영화는 한일공동선언 후이며, 일본에서 한류가 일어나기 전인 2000년 1월에 개봉된 “쉬리”이다. 북한의 특수공작부대와 한국의 정보기관의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일본에서 한국영화로는 사상 최고인 관객동원수 120만 명[20], 흥행수입 18.5억 엔을 달성했다. 그 후 2001년에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남북 병사들의 교류와 전말을 그린 “JSA”가 개봉되어 흥행수입 11.6억 엔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 후 당분간은 대히트작은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겨울연가”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한류 이후 여태까지의 한국 영화 중에서는 최대 히트가 된 청년성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와 그 남편의 사랑을 그린 “내 머리 속의 지우개”나 배용준이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남자를 연기하는 “외출” 등의 히트작이 등장했다. 2015년 8월 현재 일반사단법인 일본영화제작자연맹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흥행수입 10억 엔 이상의 한국영화는 다음의 <영화·자료 1>에 있는 6개 작품이다.

<영화·자료 1> 일본에서의 한국영화 흥행 성적[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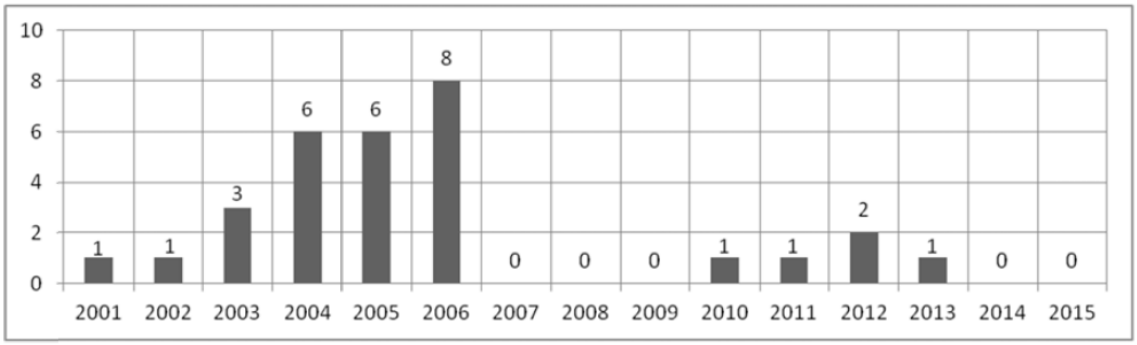
제목	흥행수입(억엔)	일본 개봉일
내 머리 속의 지우개	30.0	2005.10.22
외출	27.5	2005.9.17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10.0	2004.12.11
쉬리	18.5	2000.1.29
태극기 휘날리며	15.0	2004.6.26
JSA	11.6	2001.5.26

이 자료는 흥행수입이 10억엔 이상이라는 대 히트작품만 취급하기에[22]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의 전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영화·자료 2>로 영화 랭킹 속 한국 영화의 상황을 보고자 한다.

<영화·자료 2> 일본에서의 영화 랭킹 중의 한국영화[23]와 연별 랭크인 수

제목	최고위	최고위를 획득한 날	등장 영화 수
내 머리 속의 지우개	1	2005.1.28/11.4	8
JSA	2	2001.6.2/9	8
외출	2	2005.9.23	5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3	2004.12.17	4
실미도	4	2004.6.12	5
태극기 휘날리며	4	2004.7.3/10	4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4	2004.12.3	3

연리지	4	2006.4.21	2
폰	5	2003.5.3/10	4
말아톤	5	2005.7.8	3
태풍	5	2006.4.14	2
이중간첩	6	2003.6.14	4
데이지	6	2006.6.2	2
새드무비	6	2006.11.17	1
너는펫	6	2012.1.21	2
괴물	7	2006.9.8	2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8	2004.5.29/6.5/6.19	5
친구	8	2002.4.13	2
분신사바	8	2005.4.29	1
달콤한 인생	9	2005.4.29	1
아저씨	9	2011.9.17	1
I AM	9	2012.6.2	1
엽기적인 그녀	10	2003.2.15	1
올드보이	10	2004.11.12	1
신부수업	10	2005.7.22	1
야수	10	2006.2.17	1
웰컴 투 동막골	10	2006.11.3	1
왕의 남자	10	2006.12.15	1
해운대	10	2010.10.1	1
광해, 왕이 된 남자	10	2013.2.16	1



<영화·자료 2>를 정리해보면 위 그래프처럼 된다. <영화·자료 1>에서 본 2000년의 “쉬리”나 2001년의 “JSA”와 같은 대히트 작품 후 “엽기적인 그녀”나 “친구”와 같은 몇몇의 히트작품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후 “겨울연가”에 의해 일본에서의 한류의 인기 이후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일본의 영화계에서도 한국 영화의 인기가 정착한 것과 같이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2010년의 “해운대”까지는 히트작품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 후 2013년까지의 4년간은 2000년대 전반의 히트와는 달리 비교적 낮은 순위·적은 등장수로 1·2작품씩 랭크인 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다시 히트작품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화·자료 3>의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 총수(総数) 추이를 보면 일본에서 한국 영화가 쇠퇴하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자료 3>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 총수의 추이[24]

연/작품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위	美/153	美/165	美/182	美/162	美/150	美/144	美/164	美/184	美/193	美/175
2위	**韓/61**	**韓/54**	**韓/41**	**韓/55**	佛/25	**韓/38**	**韓/34**	**韓/43**	**韓/46**	**韓/63**
3위	佛/32	佛/31	佛/25	佛/26	**韓/23**	佛/32	佛/27	佛/38	英/30	英/40
4위	香港/12	香港/19	英/17	英/15	英/17	英/10	英/20	英/33	佛/28	佛/22
5위	英/11	英/12	中/12	태국/9	中/6	**韓日/7**	中/12	香港/9	伊/13	印/10
전수입작품수	375	404	403	388	314	328	384	473	513	524
韓/전작품수	16.3	13.4	10.2	14.2	7.3	11.6	8.6	9.1	9	12

이와 같이 영화 랭킹에 6작품의 한국영화가 등장한 2005년에는 61개의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됐지만 2008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점 그 개봉 수가 감소하여 2009년에는 일본에서의 외국 영화 개봉 수에서 프랑스에게 2위의 자리를 내줬다. 단순히 수만 비교해도 2005년의 61개에서 2009년의 23개로 약 3분의 1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증가 경향으로 전환하며 최신 데이터인 2014년은 10년 중 최다가 됐다.

이상을 정리하고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이라는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역시 "쉬리"나 "JSA"의 존재감은 특필할만하다. 양 작품은 "겨울연가"보다 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며 이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서 한국 대중문화로서 처음으로 큰 임팩트를 줬다. 또한 한일공동선언에 있는 "양국 국민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2작품이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 작품이기에 일본에서 한국을 향하는 시선에 있어서 그 이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일본에서의 한류와 같이 일본에서 히트하는 한국 영화 수는 늘어났지만 2007년 이후 한국 영화 총수가 증가한 해에도 히트 영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화·자료 4>에 있는 것처럼 한국 본국에서 한국 영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히트 영화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영화·자료 4> 한국에서의 한국영화 관객동원수[25]

제목	관객동원수	게봉년
명량	17,611,849명	2014年
국제시장	14,257,163명	2014년
괴물	13,019,740명	2006년
도둑들	12,983,330명	2012년
7번방의 선물	12,811,206명	2013년
광해-왕이된 남자	12,319,542명	2012년
왕의 남자	12,302,831명	2005년
태극기 휘날리며	11,746,135명	2004년
해운대	11,453,338명	2009년
변호인	11,375,944명	2013년
실미도	11,081,000명	2003년

<영화·자료 4>에 있는 것처럼 2007년 이후에도 다수의 히트작이 탄생했다. 이 점에 대해 한국 영화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배급회사 "SPO"는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은 중고년 여성의 고정 팬층이 중심. 이 층의 취향과 맞지 않는 작품은 일본에서 흥행하기 어렵다[26]" 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기의 쇠퇴는 다음 절 이후 보는 드라마나 K팝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한국 영화는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 있어서 초기에는 크게 기여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2.2. 드라마

일본에서의 한류는 2004년에 NHK에서 방송된 "겨울연가" 이후에 시작됐으며, 드라마는 바로 한류의 중심이었다. 이 "겨울연가" 방송 전에는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TV아사히에서 간판 앵커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와 그 인간관계를 그린 "이브의 모든 것"이 방송됐다. 수도권 지상파 방송에서의 첫 한국 연속드라마 방송이었지만 시청률이 좋지 않아 후속 한국 연속드라마는 당분간 방영되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범위에서는 일탈되지만 2001년 1월에는 NHK드라마 "다시 한 번 키스"에서 한국인 윤손하가 데뷔하여 2001년 4월에는 SMAP의 쿠사나기 츠요시가 한국의 유명인과 대담 등을 하는 예능프로그램 "초난강"이 방송을 시작했다[27]. 2002년 2월에는 일본의 TBS와 한국의 MBC의 합작 드라마로 후카다 쿄코와 원빈이 출연한 "프렌즈"가 반송됐다.

이와 같은 상황 속,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NHK·BS2에서 "겨울연가"가 방송되기 시작됐다. "겨울연가"는 주인공인 정유진(최지우)가 학생시절에 교통사고로 죽은 연인과 닮은 이민형(배용준)과 만나서 그와 약혼자인 김상혁(박용하)과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러브스토리이다. NHK의 프로듀서의 인터뷰에 의하면[28] "겨울연가" 방송 계기는 미국·영국의 드라마 중에서 대히트 시리즈를 찾을 수 없었던 중 NHK 해외 드라마 홈페이지에 보내져 온 한국 드라마의 소개 이메일이었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어 방송 종료 시점에는 NHK에 다수의 문의가 오게 되어 2003년 12월에는 BS2에서 재방송됐다. 2004년 4월에는 주연인 배용준이 일본을 방문하여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공항에 몰려 그 이후 붐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다[29]. 2004년 4월에 시작된 NHK 종합 텔레비전에서의 방송에서는 토요일 23:10-24:10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대에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회 시청률이 20.6%를 기록했다. 소설판 "겨울연가"(김은희, 윤은경, NHK 출판)은 상하권 합쳐서 122만부의 대히트[30], NHK의 관련 회사가 취급한 비디오나 DVD, 서적의 2003,2004년도 매상은 90억 엔에 이르러[31] SMBC 컨설팅이 발표한 2004년의 "히트상품 랭킹"의 1위에는 "겨울연가"가 선전됐다[32]. 또한 2004년의 유캔 신조어 유행어 대상에는 "후유소나(후유노소나타를 줄인 말)"이 탑텐에 들어갔다.

이 "겨울연가" 인기 이후 민영방송 각사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전문으로 하는 시간대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겨울연가" 방송 종료 전후의 한국 드라마 전문 시간대는 다음의 <드라마·자료 1>과 같다

<드라마·자료 1> 한류 초기의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
NHK 종합·한국 드라마 시간대[33]—기본 방송시간: 토요일 23:10-24:10[34]

제목	방송기간
겨울연가	2004.4～2004.8
아름다운 날들	2004.10～2005.4
올인	2005.4～2005.10
대장금	2005.10～2006.11
다모	2006.12～2007.3
봄의 왈츠	2007.4～2007.9
태왕사신기	2008.4～2008.9

황진희	2008.10～2009.3
스포트라이트	2009.6～2010.3
이산	2011.4～2013.1
동이	2013.1～2014.5
시크릿 가든	2013.2～2013.7
해를 품은 달	2014.7～2014.11

니혼TV·드라마킥 한류[35]—기본 방송시간: 월요일~목요일 10:25~11:20

제목	방송기간
레디고	2004.9
호텔리아	2004.9～2004.10
진실	2004.11
파파	2004.11～2004.12
별은 내가슴에	2005.1～2005.2
상두야 학교가자	2005.2～2005.3
파리의 연인	2005.3～2005.4
가을동화	2005.4～2005.5
옥탑방 고양이	2005.5～2005.6
비밀	2005.6～2005.7
진실(재)	2005.7～2005.8
아름다운 그녀	2005.9

후지TV·토요 와이드 한류 아워[36]—기본방송시간: 토요일 16:00-17:13

제목	방송기간
천국의 계단	2004.10-2005.4
슬픈연가	2005.4-2005.9

3개의 방송 시간대 중 특히 니혼TV의 드라마틱 한류에 주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중 1시간을 한국 드라마를 위해 할애했다. 그러나 니혼TV의 드라마틱 한류도 후지TV 토요 와이드 한류아워도 2005년 9월 시점에서 방송을 종료했다. 이에 의해 한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 드라마는 계속해서 방송됐다. 다음 <드라마·자료 2>는 2004년 2월 이후 지상파 방송 한국 드라마 방영 추이이다.

<드라마·자료 2> 일본·지상파 방송의 한국 드라마의 추이[37]

시기	작품수	방송시간	구체적 프로그램
2004.8	1	1	“겨울연가”(NHK·7토 23:40-24:40)
2005.8	3	6	“진실”(니혼TV·1월-4목 10:25-11:25), “슬픈연가”(후지TV·6토 16:00-17:13), “올인”(NHK·6토 23:10-24:10)
2006.8	3	3	“태양속으로”(TV도쿄·1화-3목 7월 12:30-13:30),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TV도쿄·3목 26:30-28:15), “대장금”(NHK·5토 23:10-24:10)

2007.8	3	3	“눈의 여왕”(TV도쿄·2목 12:30-13:25), “봄의 왈츠”(NHK·4토 23:10-24:05), “넌 어느별에서 왔니”(니혼TV·5월 15:55-16:53)
2008.8	2	5	“태왕사신기”(NHK·2토 23:10-24:05), “가을동화”(TV도쿄·4월-7목 11:35-12:30)
2009.8	4	13	“일지매”(TV도쿄·3월 4화 12:05-13:00), “대장금”(TBS·3월-7금 14:53-15:48), “꽃보다 남자”(TBS·3월-7금 15:48-16:53), “에덴의 동쪽”(TBS·3월 26:03-27:26)
2010.8	6	19	“온에어→히어로”(TBS·2월-6금 10:05-11:00), ”궁”(후지TV·2월-6금 14:07:15:25), “미남이시네요”(후지TV·2월-6금 15:25-16:53), “꽃보다 남자”(TBS·2월 25:55-27:08), “아이리스”(TBS·4수 21:00-21:54), “주몽”(TV도쿄·5목 6금 12:35-13:30)
2011.8	6	19	“드림하이”(TBS· 1월-5금 10:05-11:00), “제빵왕 김탁구”(후지TV· 1월-5금 14:07-15:00),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후지TV·1월-5금 15:00-15:57), “추노”(TV도쿄·3수 4목 12:35-13:30), “주몽”(TV도쿄·7일 11:55-12:49), “이산”(NHK·7일 23:00-24:00)
2012.8	3	14	“겨울연가”(TV도쿄·1수-3금 6월 7화 8:25-9:21), “사랑비”(후지TV·1수-3금 6월 7화 15:52-16:50), “보스를 지켜라”(TBS·2목 3금 6월 7화 10:05-11:00)
2013.8	2	10	“무신”(TV도쿄·1목 2금 5월-7수 8:25-9:21), “다섯 손가락”(TBS·1목 2금 5월-7수 10:05-11:00)
2014.8	3	9	“야왕”(TV도쿄·1금 4월-7목 8:25-9:21), “백년의 신부”(TBS·1금 4월 6수 27:19-28:19), “해를 품은 달”(NHK·3일 23:00-14:00)
2015.8	1	5	“마마”(TV도쿄·3월-7금 8:15-9:21)

한국 드라마 전문 시간대가 종료한 2005년 9월 이후, TV도쿄에서 점심시간 전후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게 되어[38] 2006년 8월 이후에도 작품 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겨울연가” 이래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온 NHK 종합의 한국 드라마 시간대가 2007년 9월에 일시 방송을 취소하였으며 동일하게 2008년 9월에는 TV도쿄의 점심시간의 한국 드라마 방송이 중지됐다. 이 시기는 “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2007년 10월)이 출판되는 등 “한류는 끝났다”고 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후 작품 수는 증가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6개 작품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특히 2010년에는 새로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가 만들어진 것에 의한다. 2010년 이후의 한국 드라마 시간대는 <드라마·자료 3>과 같다

<드라마·자료 3> 2010년 이후의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
TBS·한류 셀렉트[39]—기본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10:05-11:00

제목	방송기간
아름다운 날들	2010.2-2010.3
올인	2010.3-2010.4
봄의 왈츠	2010.5-2010.6
천국의 계단	2010.6-2010.7

온에어	2010.7-2010.8
히어로	2010.8
못된 사랑	2010.8-2010.9
스타의 연인	2010.9-2010.10
신데렐라맨	2010.10-2010.11
눈의 여왕	2010.11-2010.12
공부의 신	2010.12-2011.1
천사의 유혹	2011.1-2011.2
파스타	2011.2-2011.3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2011.3-2011.4
내조의 여왕	2011.4-2011.5
매리는 외박중	2011.5-2011.6
나는 전설이다	2011.6-2011.7
아가씨를 부탁해	2011.7
드림하이	2011.7-2011.8
꽃보다 남자	2011.8-2011.9
달콤한 나의 도시	2011.9-2011.10
로열패밀리	2011.10-2011.12
가시나무새	2011.12-2012.1
로맨스가 필요해	2012.1-2012.2
개인의 취향	2012.2-2012.3
내게 거짓말을 해봐	2012.3-2012.4
로맨스타운	2012.4-2012.5
여인의 향기	2012.5-2012.6
꽃미남 라면가게	2012.6-2012.7
보스를 지켜라	2012.7-2012.8
드림하이 2	2012.8-2012.9
나도, 꽃!	2012.9
총각네 야채가게	2012.9-2012.10
풀하우스 테이크 2	2012.10-2012.11
빅	2012.11-2012.12
더킹 투하츠	2012.12-2013.1
지고는 못살아	2013.1-2013.2
아이두 아이두	2013.3-2013.4
로맨스가 필요해 2012	2013.4-2013.5
난폭한 로맨스	2013.5
옥탑방 왕세자	2013.6
이웃집 꽃미남	2013.7
다섯 손가락	2013.7-2013.8

그 겨울, 바람이 분다	2013.8-2013.9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2013.9-2013.11
네일샵 파리스	2013.11
남자가 사랑할 때	2013.11-2014.1
성균관 스캔들	2014.1-2014.2
시크릿 가든	2014.2-2014.3

후지TV·한류α[40]—기본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14:07-15:57

제목	방송기간
내 이름은 김삼순	2010.1
태양의 여자	2010.2-2010.3
찬란한 유산	2010.3
뉴하트	2010.4
내생애 마지막 스캔들	2010.5
환상의 커플	2010.5-2010.6
달자의 봄	2010.6-2010.7
내이름은 김삼순(재)	2010.7
궁	2010.7-2010.8
미남이시네요	2010.7-2010.8
커피프린스 1호점	2010.8-2010.9
부활	2010.8-2010.9
그저 바라보다가	2010.9-2010.10
어느 멋진 날	2010.1
신데렐라 언니	2010.10-2010.11
1%의 어떤 것	2010.10-2010.11
찬란한 유산(재)	2010.11-2010.12
내생애 마지막 스캔들(재)	2010.11-2010.12
부자의 탄생	2010.12
미남이시네요(재)	2011.1
베토벤바이러스	2011.2
뗴루아	2011.2-2011.3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2011.2-2011.3
달자의 봄(재)	2011.3-2011.4
오! 마이 레이디	2011.4
미남이시네요(재)	2011.4-2011.5
장난스런 KISS	2011.5
역전의 여왕	2011.5-2011.7
커피프린스 1호점(재)	2011.5-2011.6
検事プリンセス	2011.6

궁	2011.6-2011.7
제빵왕 김탁구	2011.7-2011.8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재)	2011.7-2011.8
그저 바라보다가(재)	2011.8
마이 프린세스	2011.8-2011.9
대물	2011.9-2011.10
천국의 계단(재)	2011.9-2011.10
열여덟 스물아홉	2011.9-2011.11
49일	2011.10-2011.11
파라다이스 목장	2011.11-2011.12
베토벤바이러스(재)	2012.1
시티헌터	2012.2-2012.3
최고의 사랑	2012.5-2012.6
사랑비	2012.7-2012.8

두 시간대 모두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송하며 작품수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수도 증가했다. 또한 이 시기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일본의 최신 드라마가 방영되는 21시 시간대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방영 됐다는 것이다. TBS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수요일 21시에 “아이리스”를 방영했다. 그러나 첫 회는 10.1%로 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그 후 시청률은 내려갔으며 한때는 6.0%까지 내려가는 등 절대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 드라마의 전용 시간대가 생기고, 한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은 증가했지만 동시에 2011년 이후 한류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단속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으나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후지TV의 한류α가 종료했으며 2014년 3월에는 TBS의 한류셀렉트가 종료했다. 2015년 8월 현재에는 TV도쿄에서 시작된 한국 드라마 전용 시간대인 한류 프리미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뿐이며 한국 드라마에 접할 기회는 2010년·2011년의 전성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더구나 케이블방송 등 유료채널을 보면 시청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늘어난다. 특히 24시간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전문 채널에 주목할 수 있다. 1996년 10월에 당초 일본에 사는 한국인 대상의 방송을 주로 반영한 KNTV가 개국했으며 2000년 6월에는 Mnet이 방송을 시작했다. Mnet은 2002년 1월에는 일시적으로 방송을 중지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다시 새롭게 방송을 재개했다. 2006년 3월에는 KBS World가 개국됐다.

이상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이라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역시 “겨울연가”의 임팩트는 크다. 2004년의 NHK 종합TV에서의 방송에서 11년이 지난 2015년 조사에서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19%의 사람이 배용준을 들었으며 2위이다[41]. 또한 5위의 최지우도 2% 있었다. 또한 “겨울연가” 이후 작품 수나 방송 시간의 추이는 있지만 지상파에서 한국 드라마는 일관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영화의 매체와 비교하여 시청자는 압도적으로 많기에[42]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틀림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한국에 관한 정보원, 한국 관련하여 본적이 있는 방송 상위의 조사를 봐도 알 수 있다[43]. 또한 한류 발생의 한 인자로 199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에서의 다채널화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 드라마는 이제 일본에서 드라마의 한 장르로써 확립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3. K팝

음악의 분야는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도 198년의 한일공동선언 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였다. 대표적인 가수로는 “가슴 아프게” 등의 대표 곡을 갖는 트로트 가수이자 1977년에 레코드대상에서 기획상을 수상한[44] 이성애. “돌아와요 부산항에”등의 대표 곡을 갖고 1987년~1990년까지 4년 연속으로 NHK 홍백가합전에 출장한 조용필. “유메온나”에서 1988년 일본유선대상 그랑프리, “요이도레테”에서 1989년 일본레코드대상 금상을 획득하여 1988년~1994년까지 7년 연속으로 홍백가합전에 출장한 계은숙. “사랑☆고마워”(일본크라운주식회사)에서 2001년 일본레코드대상 기획상을 수상하여 1989년, 1995년, 2001년에 각각 홍백가합전에 출장한 김영자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트로트 가수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인 가수는 S.E.S일 것이다. S.E.S.는 바다·유진·슈의 3명으로 구성된 여성 그룹이며 특히 멤버의 슈는 가나가와현 출신의 재일 한국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997년 11월에 S.M. Entertainment에서 “I’m your Girl로 한국에서 데뷔하고 그 후 1998년 10월에 “메구리아우 세카이(우연히 만난 세계)”로 일본 데뷔를 했다. 일본 텔레비전의 음악 방송 “더 요루모 힙파레”등에 출현을 했지만 음악적으로는 데뷔곡인 “메구리아우 세카이”의 오리콘차트 37위가 최고 기록이었으며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K팝 가수는 BoA이다. BoA는 2000년 8월에 S.E.S.와 같은 S.M. Entertainment에서 “ID; Peace B”로 한국 데뷔를 하고 2001년 5월에 avex에서 “ID; Peace B”의 일본어판으로 일본 데뷔를 이뤘다. 2002년에는 일본레코드대상 금상을 수상하고(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에도 금상 수상), 홍백가합전에도 출장했다(그 후 2007년까지 6년 연속 출장). BoA의 싱글곡과 오리콘차트의 상황은 다음의 <K팝·자료 1>과 같다.

<K팝·자료 1> BoA의 싱글 CD 발매곡[45]

제목	최고위	등장회수	발매일
ID; Peace B	20	6	2001.5.30
Amazing Kiss	23	8	2001.7.25
마음은 전해진다(気持ちはつたわる)	15	10	2001.12.5
LISTEN TO MY HEART	5	9	2002.1.17
Every Heart	10	10	2002.3.13
Don’t start now	17	3	2002.5.29
VALENTI	2	26	2002.8.28
기적/No.1	3	17	2002.9.19
JEWEL SONG/ BESIDE YOU	3	13	2002.12.11
Shine We Are!/ Earthsong	2	14	2003.5.14
DOUBLE	2	13	2003.10.22
Rock With You	5	10	2003.12.3
Be the one	15	6	2004.2.11
QUINCY/고노요노시루시(コノヨノシルシ)	4	13	2004.9.1
메리크리	5	12	2004.12.1
DO THE MOTION	1	12	2005.3.30
make a secret	5	8	2005.8.31
다키시메루(抱きしめる)	9	11	2005.11.23
Everlasting	4	9	2006.1.18

나나이로노 아시타(七色の明日)～brand new beat/Your Color	3	15	2006.4.5
KEY OF HEART/ DOTCH	7	6	2006.8.9
Winter Love	2	14	2006.11.1
Sweet Impact	5	7	2007.4.25
LOVE LETTER	3	8	2007.9.26
LOSE YOUR MIND	6	6	2007.12.12
be with you.	13	5	2008.2.20
Vivid -Kissing you, Sparking, Joyful Smile	5	6	2008.6.4
에이엔(永遠)/UNIVERSE/ Believe in LOVE	8	5	2009.2.18
BUMP BUMP!	8	4	2009.10.28
마모리타이(まもりたい)～White Wishes	3	12	2009.12.9
WOO WEEKEND	10	6	2010.7.21
Only One	10	4	2013.2.27
Tail of Hope	12	3	2013.6.26
Message/Call my name	13	3	2013.10.23
Shout It Out	12	3	2014.3.5
MASAYUME CHASING	15	4	2014.7.23
FLY	22	3	2014.12.3

이 것을 보면 2002년 이후 안정적으로 10위 이내에 들어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에 “DO THE MOTION”으로 1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미한 상황이며 2013년 이후에는 10위권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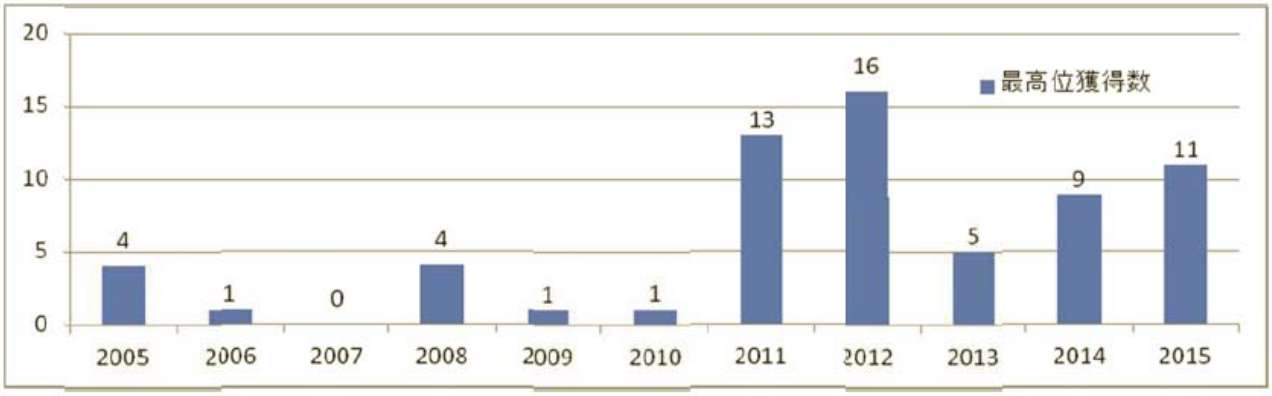
BoA의 등장 후 2002년에는 한일공동개최의 축구 월드컵이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CHEMISTRY, Sowelu, 한국 측에서는 박정현, Brown eyes가 참가한 기획 유닛 Voices of KOREA/JAPAN가 탄생하여 공식 테마송인 “Let’s Get Together Now”는 오리콘 주간 랭킹 3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겨울연가”가 NHK종합에서 방송되어 일본에서도 한류현상이 발생했다. 한류 이후 음악의 분야에서도 한국인 가수가 다수 히트곡을 내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있는 1988년 이후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참조되고 있는 오리콘 주간차트의 10위권 이내에 랭크인한 한국인 가수와 곡은 하기의 <K팝·자료 2>와 같다.

<K팝·자료 2> 오리콘 주간차트에 랭크인한 한국인 가수와 연별 최고의 획득수[46]

최고위	가수명	최고위획득곡	발매일
1	BoA	″DO THE MOTION″	2005.3.30
1	동방신기	″Purple Line″ 등 전 11곡	2008.1.16 등
1	KARA	″제트코스터 러브″	2011.4.6
1	장근석	″Let me cry″	2011.4.27
1	T-ARA	″Bo Peep Bo Peep″	2011.9.28
1	CN BLUE	″Where you are″	2012.2.1
1	김형준	″HEAT″	2012.7.4
1	소녀시대	″Oh!″	2012.9.26
1	2PM	″Winter Game″ 등 전 2곡	2013.10.16

1	SUPER JUNIOR	"MAMACITA~AYAYA"	2014.12.29
1	방탄소년단	"FOR YOU"	2015.6.17
2	류시원	"사쿠라(桜)"등 전 3곡	2005.4.13 등
2	이병헌	"이츠카(いつか)"	2008.10.15
2	BEAST	"SHOCK"	2011.3.16
2	FTISLAND	"SATISFACTION"	2011.4.20
2	MBLAQ	"Your Luv"	2011.5.4
2	초신성	"그리운 날에"	2011.6.15
2	SHINee	"누난 너무 예뻐(Replay)"등 전 6곡	2011.6.22 등
2	SUPER JUNIOR DONGHAE & EUNHYUK	"Oppa,Oppa"	2012.4.4
2	Infinite	"Be Mine" 등 전 2곡	2012.4.18 등
2	SUPER JUNIOR-K.R.Y.	"Promise You"	2013.1.23
2	B.A.P	"NO MERCY" 등 전 2곡	2014.4.2 등
2	U-KISS	"Sweetie"	2014.12.17
2	JYJ	"WAKE ME TONIGHT"	2015.1.21
2	Apink	"Mr.Chu(On Stage)" 등 전 2곡	2015.2.18 등
3	BIG BANG	"MY HEAVEN"	2009.6.24
3	RAINBOW	"A"	2011.9.14
3	2AM	"Never let you go"	2012.9.12
3	BOYFRIEND	"키미토(君と)Dance Dance Dance/MY LADY"	2012.11.28
3	B1A4	"이게 무슨일이야" 등 전 3곡	2013.8.28 등
3	GOT7	"AROUND THE WORLD"	2014.10.22
3	MYNAME	"HELLO AGAIN"	2015.7.28
4	SE7EN	"スタートライン/ Forever"	2005.10.19
4	SS501	"LUCKY DAYS"	2008.6.18
4	김정훈	"키미오 마모리타이(君を守りたい)"	2008.7.16
4	AOA	"Like a Cat"	2015.2.25
4	BTOB	"나츠이로 MY GIRL"	2015.8.19
5	K	"over…" 등 전 2곡	2005.3.2 등
5	대국남아	"Jumping"	2012.3.28
5	2PM+2AM ‘Oneday’	"Oneday"	2012.7.4
5	IU	"You & I"	2012.7.18
5	2NE1	"I LOVE YOU"	2012.9.19
5	대성(from BIGBANG) feat. 하카세 타로	"I LOVE YOU"	2013.7.31
5	CODE-V	"지금, 전하고 싶은 것"	2013.11.13
5	BEE SHUFFLE	"Welcome to the Shuffle!!" 등 전 2곡	2014.2.5등
5	CROSS GENE	"Future"	2015.1.14

5	Block B	"Very Good"	2015.1.21
5	우영(From 2PM)	"R.O.S.E"	2015.3.4
6	박용하	"네가 최고(君が最高！)" 등 전 2곡	2006.9.20등
6	SHU-I	"HITORIJIME"	2012.4.11
6	AFTER SCHOOL	"Lady Luck/Dilly Dally"	2012.6.13
6	INFINITE F	"코이노 사인(恋のサイン)"	2014.11.19
6	VIXX	"Error"	2014.12.10
7	신혜성 X 키요키바 슌스케	"I Believe"	2011.10.05
7	윤학 from 초신성	"WAITING 4 U"	2012.10.29
7	TRITOPS*	"아나타니"	2014.10.29
7	F.CUZ	"다시 한 번만~Remind~ (もう一度だけ~Remind~)"	2014.12.17
7	Nu'est	"NA.NA.NA.눈물(NA.NA.NA.涙)"	2015.5.20
8	니콜	"Something Special"	2015.6.24
9	계은숙	"유메온나(夢おんな)"	1988.7.27
9	ZE:A	"러브☆레터"	2010.12.22
9	Secret	"Madonna"	2011.8.3
9	SM☆SH	"STEP"	2011.11.2
9	이승기	"연애시대"	2012.3.6
10	김무영	"believe" 등 전 2곡	2011.12.21등
10	Orange Caramel	"상냥한 악마"	2012.9.5



이 <K팝·자료 2>를 보면 랭크인한 한국인 가수는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배우를 주 활동으로 하고 일본에서 화제를 부른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노래를 낸 한류 드라마형. 한국에서 가수를 주 활동으로 하여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가수로 진출해 한일 거의 동시기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일동시활동형. 그리고 계은숙과 같이 한류 이전부터 트로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나 K, CODE-V, BEE SHUFFLE, SHU·I, JUNO와 같이 주로 일본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가수로 한류 드라마형으로도 한일활동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3가지이다. 베스트 10까지 랭크인한 66의 가수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된다.

<K팝·그림> 한국인 가수의 3유형

한류 드라마형	한일동시활동형	기타

	BoA 東方神起 KARA	
	T-ARA CN BLUE 김형준	
	소녀시대 2PM SUPER JUNIOR	
	방탄소년당 BEAST FTISLAND	
	MBLAQ 초신성 SHINee	
장근석	SUPER JUNIOR DONGHAE & EUNHYUK	JYJ
	Infinite SUPER JUNIOR-K.R.Y. B.A.P	K
류시원	U-KISS Apink BIG BANG	CODE-V
이병헌	RAINBOW 2AM BOYFRIEND	BEE SHUFFLE
김정훈	B1A4 GOT7 MYNAME	SHU-I
박용하	SE7EN SS501 AOA	계은숙
	BTOB 대국남아 2PM+2AM ‘Oneday’	김무영
	IU 2NE1	
	대성(from BIGBANG)feat.하카세 타로	
	CROSS GENE Block B	
	우영(From 2PM) AFTER SCHOOL	
	INFINITE F VIXX	
	신혜성 X 키요키바 슌스케 윤학 from 초신성	
	TRITOPS* F.CUZ Nu’est	
	니콜 ZE:A Secret	
	SM☆SH 이승기 Orange Caramel	

각각 일본에서 히트된 시기를 보면 한류 드라마형은 2011년에 1위를 기록한 장근석을 예외로 2005~2008년 즈음에 전성기였던 점에 비해, 한일동시활동형은 주로 2008년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최근에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한일동시활동형에서 눈에 띄는 것이 1위를 11곡 내고 있는 동방신기이다. 동방신기는 창민·윤호·재준·유천·준수의 남성 5인으로 구성되어 2004년 2월에 S.M. Entertainment에서 “HUG”로 한국 데뷔를 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내일 기념 싱글을 발매한 후 2005년 4월에 정식으로 일본 데뷔를 했다. 2008년의 레코드 대상에서는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되어버린걸까?(どうして君を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う？)”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여(2009년에도 우수작품상 수상), 홍백가합전에도 출장했다(2009년에도 출장). 그러나 유천·재준·준수의 세 명이 소속기획사인 S.M. Entertainment와의 불공정계약(13년이나 되는 장기 전속계약, 수익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47]. 그 후 일본에서의 레코드대상 수상식, 홍백가합전 출장, CD의 발매 등 약간의 활동은 했으나 “Why?(Keep Your Head Down)” 이후 5명에서의 활동을 정지했다. 동방신기의 싱글곡과 오리콘차트의 상황은 다음의 <K팝·자료 3>과 같다.

<K팝·자료 3> 동방신기의 싱글CD 발매곡[48]

제목	최고위	등장회수	발매일
HUG	77	5	2004.11.25
Stay With Me Tonight	37	5	2005.4.27
Somebody to Love	14	3	2005.7.13
My Destiny	16	15	2005.11.2
아스와쿠루카라(明日は来るから)	22	7	2006.3.8
Rising Sun/Heart, Mind and Soul	22	6	2006.4.19
Begin	15	5	2006.6.21
Sky	6	3	2006.8.16
miss you/"0" 정·반·합("0"-正.反.合)	3	4	2006.11.8
Step by Step	7	5	2007.1.24
Choosey Lover	9	6	2007.3.7
Lovin' You	2	12	2007.6.13
SUMMER～Summer Dream/Song for you/Love in the Ice	2	7	2007.8.1
SHINE/Ride on	2	6	2007.9.19
Forever Love	4	6	2007.11.14
Together	3	5	2007.12.19
Purple Line	1	9	2008.1.16
Two Hearts/WILD SOUL	13	18	2008.2.6
Runaway/My Girlfriend	8	26	2008.2.13
If...!?/Rainy Night	12	29	2008.2.27
Close to you/Crazy Life	9	7	2008.3.5
Keyword/Maze	7	16	2008.3.12
Beautiful you/천년연가(千年恋歌)	1	43	2008.4.23
어째서 너를 좋아하게 되어버린걸까? (どうして君を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ろう?)	1	34	2008.7.16
주문～MIROTIC	1	20	2008.10.15
Bolero/Kiss The Baby Sky/와스레나이데(忘れないで)	1	13	2009.1.21
Survivor	3	35	2009.3.11
Share The World/We are!	1	45	2009.4.22
Stand by U	2	34	2009.7.1
BREAK OUT!	1	12	2010.1.27
도키오토메테(時ヲ止メテ)	1	20	2010.3.24
Why? (Keep Your Head Down)	1	20	2011.1.16
Superstar	2	15	2011.7.20
Winter~Winter Rose/Duet-winter ver.-~	2	14	2011.11.30
STILL	1	10	2012.3.14
ANDROID	1	9	2012.7.11
Catch Me-If you wanna-	1	9	2013.1.16

OCEAN	2	10	2013.6.12
SCREAM	2	9	2013.9.4
Very Merry Xmas	2	9	2013.11.27
Hide & Seek/Something	2	6	2014.2.5
Sweat/Answer	2	8	2014.6.11
Time Works Wonders	2	7	2014.11.5
사쿠라미치(サクラミチ)	2	11	2015.2.25

K팝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먼저 한류의 발생원인으로 든 표현의 자유의 확대,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장려책 등 몇까지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일동시활동형에 관해 말하자면 푸시(push)요인으로는 한국 국내 시장이 작다는 사실. 특히 불법 다운로드는 일본 이상으로 많으며 CD가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49]. 풀(pull)요인으로는 한류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를 받아드릴 기반이 생긴 것. 특히 한 신인으로 토대를 굳히고[50] 그리고 성공한 동방신기의 인기와 같이 다른 K팝 아티스트에게도 관심이 확산하여 You Tube 등에 의해 뮤직비디오나 음악 방송을 시간차 없이 음악을 즐기는 팬이 존재한 사실. 또한 1990년대까지와 같이 외모나 댄스만을 중시한 아이돌이 아닌 본격적인 노래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51].

2010년에는 유캔 신조어·유행어 대상에 K팝이 후보로 들어가 오리콘의 신인 아티스트별 매상금액 랭킹[52]의 1위에 KARA(13.0억엔·총 매출 45.3만장), 2위에 소녀시대(8.8억엔·총 매출 38만장)가 랭크인 하는 등 일본에서의 인기·주목을 모았다. 4장에서 상세히 보겠지만 2012년 이후 일본사람의 대한 친근감은 급격히 악화했지만 <K팝·자료 2>에 있듯이 K팝의 인기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큰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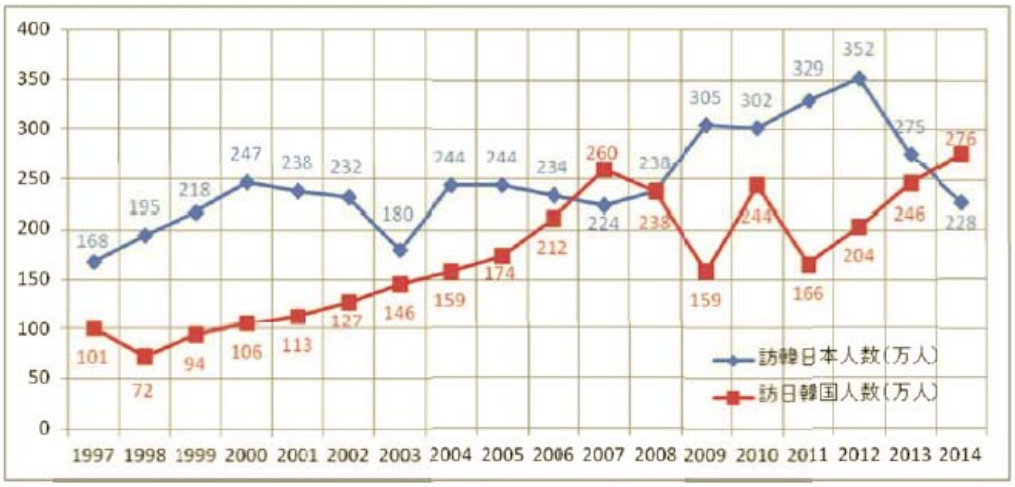
마지막에 한일공동선언의 문화·인적 교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까지의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 한류는 중고년 여성이 팬의 중심이었지만[53] K팝 특히 한일동시활동형은 팬의 중심층이 10~20대다[54]. “‘한류’의 첫 번째 내항자를 배용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동방신기”, 그리고 세 번째는 “소녀시대”[55]”라고 평가하는 기사가 있듯이, K팝에서는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두 그룹이 팬층의 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상을 보면 K팝은 일본 내의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층을 확대하는 것에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일 파트너십은 구축됐는가?

4.1.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전진상황

여태까지 3장에서는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 중에서도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봐왔다. 때문에 총 정리를 하는 장이 되는 본 장에서는 먼저 한일간의 인적 왕래의 추이부터 보고자 한다. 다음의 <진전상황·자료 1>은 방한 일본인수와 방일 한국인 수의 추이이다.

<진전상황·자료 1> 한일간의 인적 왕래 추이[56]



관광객수는 그 때의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에[57] 합쳐서 한국 원화와 일본의 엔화의 환율도 본다.

<진전상황·자료 2> KRW/JPY 환율 추이[58]

방한 일본인수에 주목을 하면서 두 가지 그래프에서 축구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전후를 보면 이 시기에는 엔화·원화의 환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며 한일 공동주최로 월드컵이라는 큰 이벤트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은 2001년보다 약 6만 명 방한 일본인수가 감소했다. 또한 다음 해인 2003년은 중국을 중심으로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한 것도 있어 추가적으로 52만 명이나 감소했다.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류가 일어난 2004년 이후에는 드라마의 촬영장소를 도는 투어도 많이 발매되면서 방한 일본인수도 급속히 회복했다. 특히 2004년 이후 2007년 말까지 엔저/원고가 진행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게는 불리한 환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일본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한류의 영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일 한국인은 2005년 3월에 실시된 아이치(愛知) 국제박람회 시에는 일본에서의 체재가 90일 이내인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 그 후 상시화 됐다. 그리고 엔저/원고의 재원을 받아 2007년에는 방한 일본인수를 웃돌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엔고/원저로 전하여, 그에 수반해 방한 일본인수는 2012년에는 과거 최고인 352만 명에 달했다. 2013년 이후 다시 엔저/원고로 전하여 2014년에는 2007년의 수준까지 감소하게 됐다.

이상으로부터 문화교류 중에서도 축구 월드컵과 같은 국가사업적인 성질이 있는 스포츠 이벤트

는 그것만으로는 인적 교류의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한일 공동주최 축구 월드컵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그 것이 그 후 일어난 한류의 밑바탕이 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일과성의 행사가 있었기에 이본 측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의 인적 교류의 촉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그 후 일반 시민의 레벨에서 일어난 한류가 더욱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방향성의 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추이에서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의 진전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진전상황·자료 3〉 한국에 대한 친근감의 추이[5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代	51.9	59.1	56.1	63.7	63.9	63.1	61.2	50.0	64.4	61.2	55.0	64.0	61.3	53.8	56.1	50.0
30代	53.8	53.4	52.5	67.0	61.9	65.4	58.7	54.1	67.1	63.2	53.3	66.8	67.6	46.7	44.2	35.2
40代	51.7	52.5	53.9	56.5	57.1	60.8	54.7	57.9	58.7	63.5	55.1	67.0	69.6	42.8	48.5	40.5
50代	45.9	50.1	49.4	51.6	55.1	60.2	48.4	49.9	52.0	58.6	57.0	66.6	62.9	45.7	41.5	38.2
60代	44.6	47.9	50.2	48.0	50.9	51.6	45.6	45.2	49.0	52.9	50.1	57.3	61.6	37.5	34.3	26.5

〈진전상황·자료 3〉를 보면 한국이 민주화된 1987년 이후 1990년대 전반은 친근함을 느끼는 비율이 40% 전반에서 추이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은 이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일공동선언이 서명된 직후인 1998년의 조사와 4년 전인 2011년의 조사를 비교하면 일본인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16%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봐보면 2002년의 축구 월드컵, 2004년의 "겨울연가"로 인해 시작된 한류의 시점에서 과거 최고의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6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마네(島根)현이 2005년 3월에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문제이다. 이 문제에 의해 자매도시교류 정지 등의 영향이 발생하는 등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큰 정치문제가 됐다. 또한 2012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현저히 친근감이 감소했다. 이는 일본 측의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상륙한 것으로부터 상징되는 영토문제나 역사문제가 고조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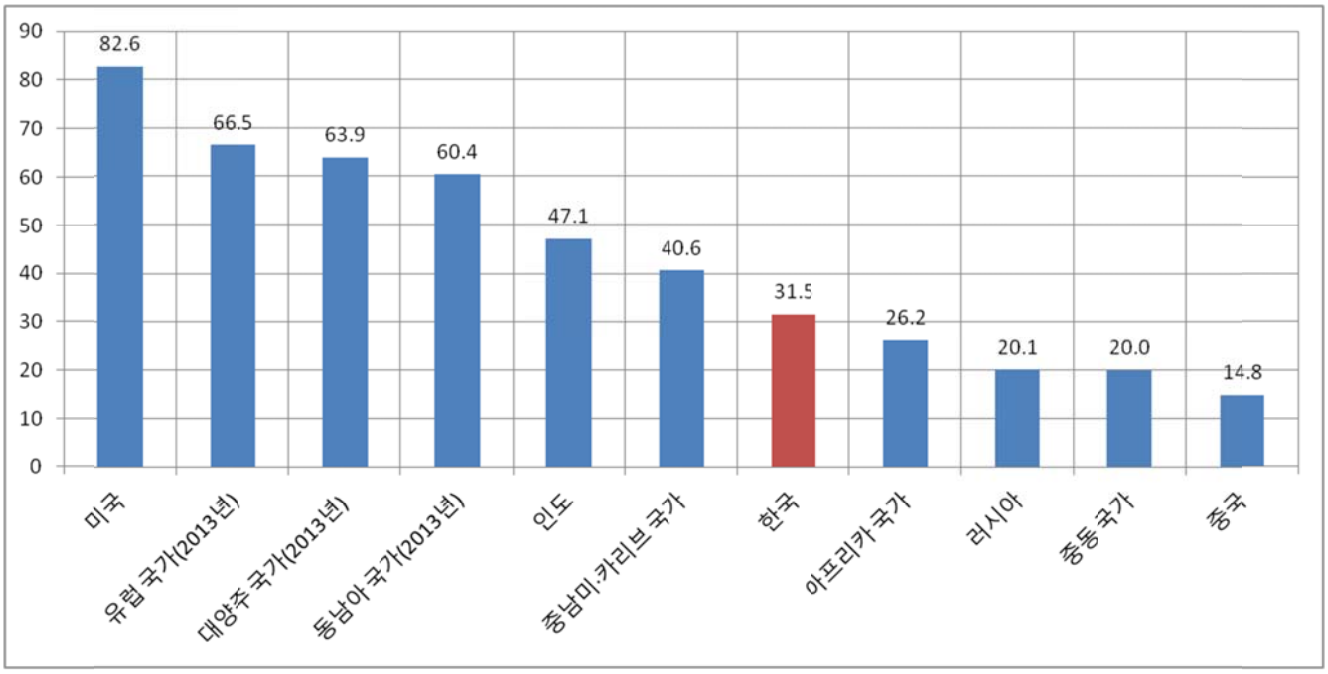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적잖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2년으로의 변화를 세대별로 보면 친근감은 전 세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20대에서는 7.5%만 감소하고 있어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다. 앞서 본 것처럼 K팝의 인기가 2012년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일동시활동형은 팬의 중심층이 10~20대 인 것을 생각하면 K팝이라는 문화관계가 일본에서 한국을 향한 친근감의 저하 억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측의 시점에서 봤을 때 3장에서 본 것과 같은 문화 교류의 진전 및 앞서 본 인적 교류의 진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인적 관계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한일공동선언 10에 있는 “양국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에 기대되는 “정부간 교류에 머물지 않는 양국 국민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의 결과 초래된 “각종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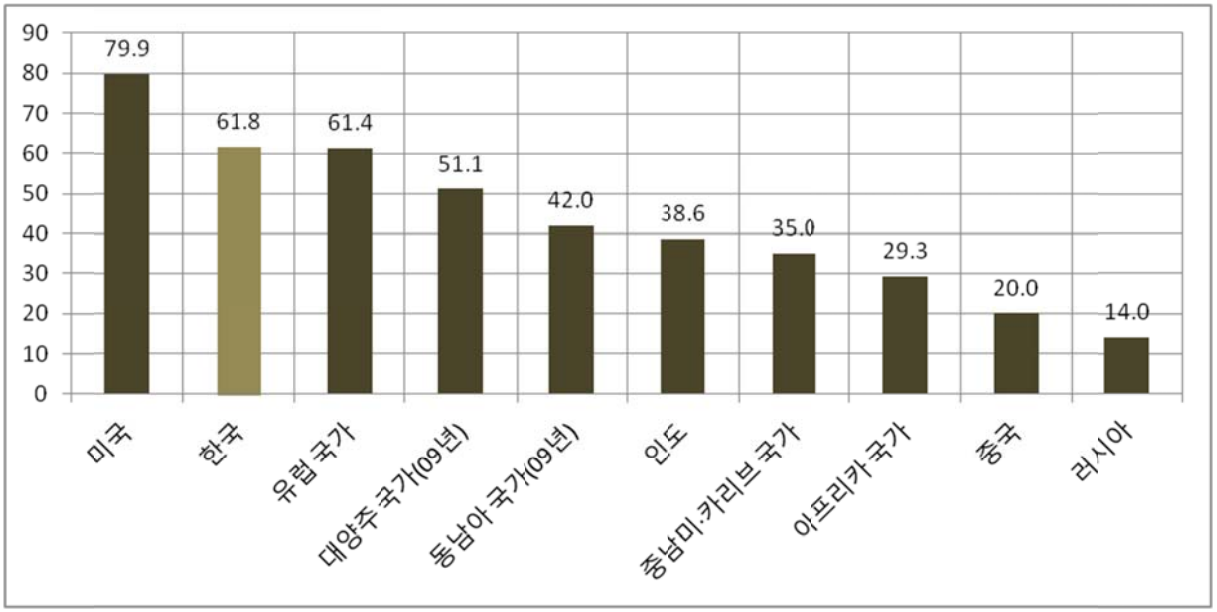
4.2. 맺는 말

이상, 봐온 것처럼 한일공동선언이 서명된 이래, 일본측이 한국 문화를 즐길 기회는 확실히 증가했다. 2012년까지는 일본인의 대한 친근감도 “친근감을 느낀다”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밑도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급격히 대한 친근감이 악화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같은 상황에 입각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를 하면 2010년 시점에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였지만 최근인 2014년에는 유럽 각국, 대양주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남미·카리브 국가보다도 친근감이 낮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맺는 말·자료 1> 각국에 대한 친근감[60]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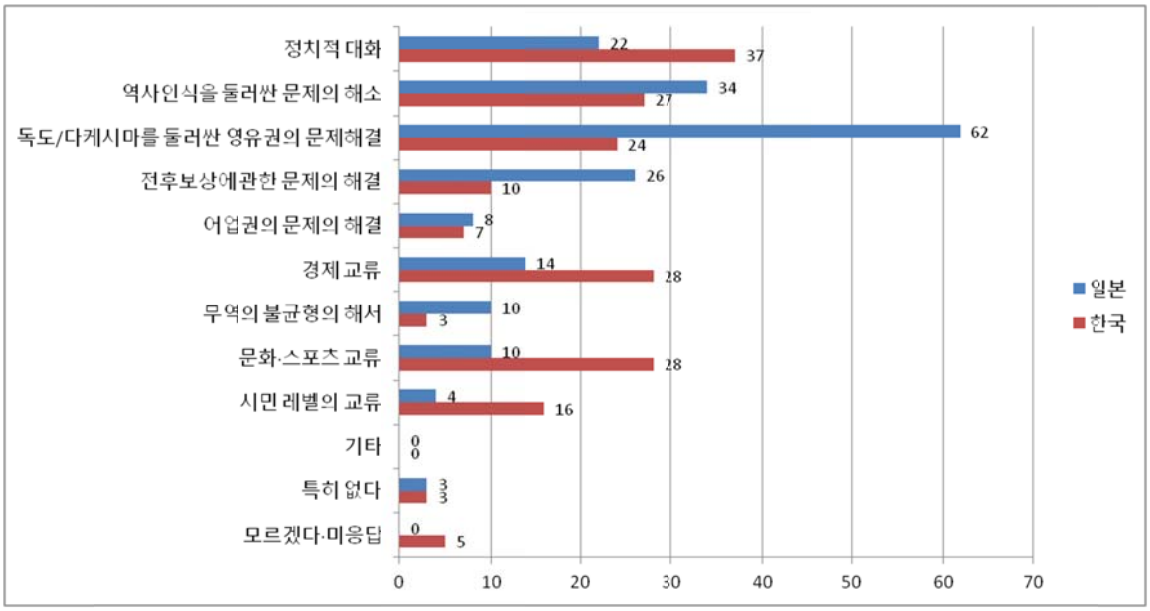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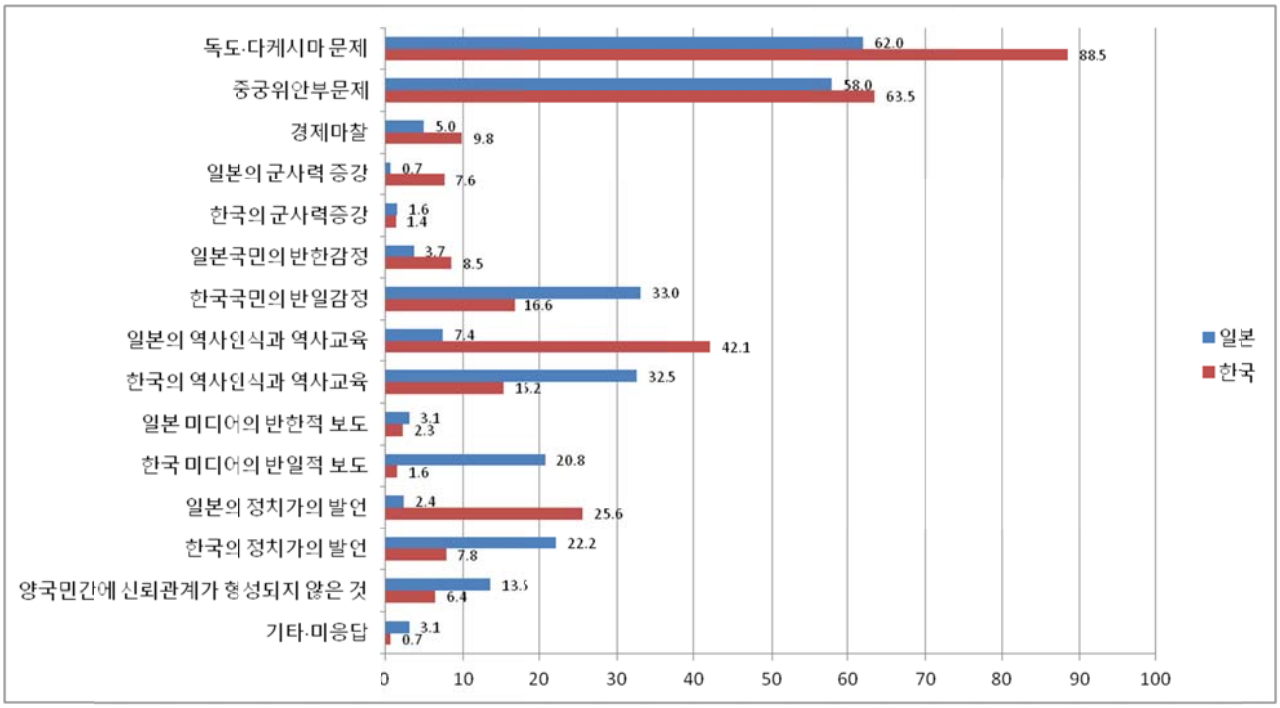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를 볼 때 대한 친근감과 한일의 정치적 관계의 악화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점이야 말로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에도 큰 과제로써 남아있는 점이다. 한일공동선언은 “각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초”로써의 “양국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하려고 의도했지만 이 “각 분야”에 당연 포함 되는 정치적 분야에서 한일공동선언 서명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도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이 고조를 보여 그 관계 및 대한 친근감은 반드시 양호하게 추이하고 있지 않다. 그 가장 적절한 예가 2012년의 대한 친근감의 저하일 것이다. 한일 양국만도 한일관계의 과제나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영토문제나 역사문제를 들고 있다.

<맺는 말·자료 2> 2010년 NHK 여론조사에서의 한일관계의 과제[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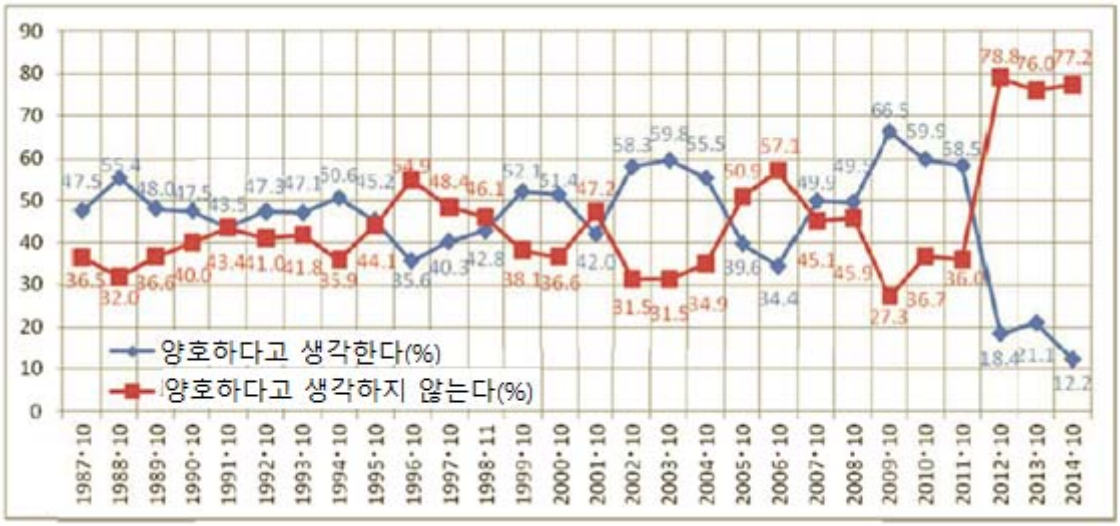


<맺는 말·자료 3> 2015년 언론 NPO 한일 공동여론조사에서의 한일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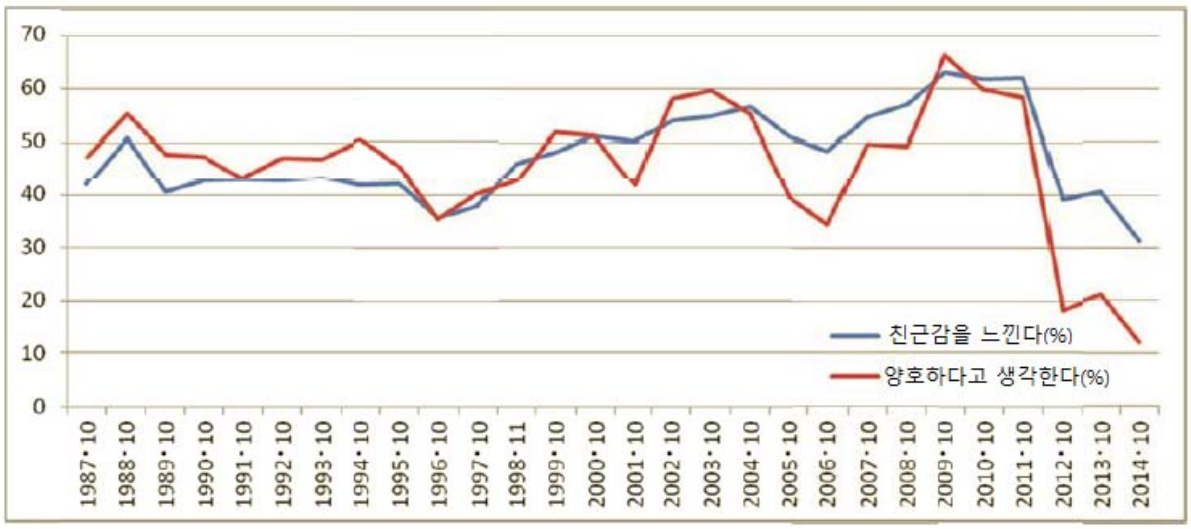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점에서 문화·인적 분야의 교류의 진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반드시 한일 관계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맺는 말·자료 4>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추이[63]



<맺는 말·자료 5>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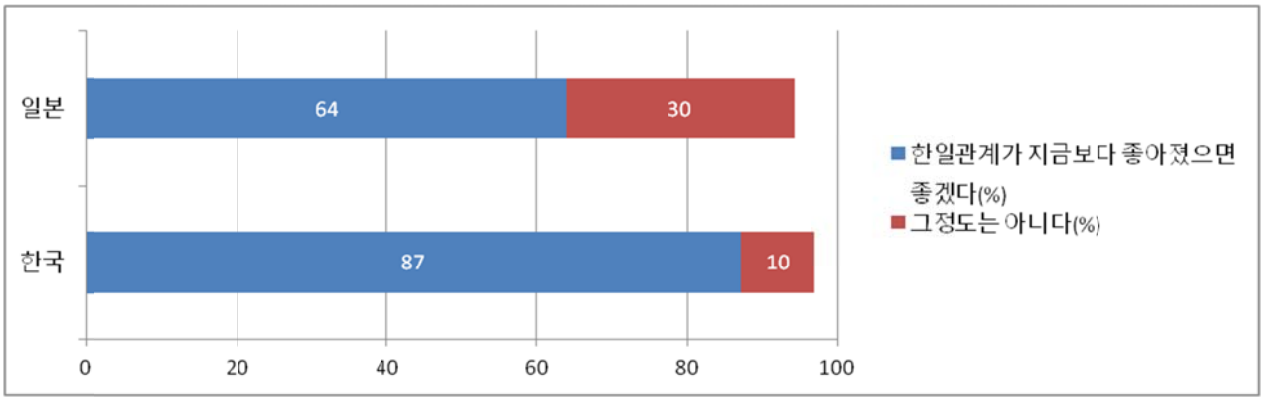


첫 번째 점은 현재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감소에 비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의 감소가 완만하다는 점이다. <전정상황·자료 3>과 <맺는 말·자료 4>를 같이 나란히 보면(<맺는 말·자료 5>), 1990년대 전반까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도 한국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밑돌았다. 그러나 한일공동선언이 서명될 즈음에는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같게 변화하게 됐다. 그러나 2001년의 후소샤(扶桑社) 발행의 교과서 문제 및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한일간에 정치문제화 되던 시기와 이 다케시마의 날 문제가 일어난 2005년 이후의 시기는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보면 현재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감소에 비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의 감소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의 대한 친근감의 대폭 저하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도 동일하다.

두 번째 점은 앞서 본 것처럼 K팝이라는 문화관계가 일본에서 한국을 향한 친근감의 저하 억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K팝 특히 한일동시활동형은 팬의 중심층을 이루는 20대에서 친근감의 감소가 소폭에 억제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점은 한일 양국민이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맺는 말·자료 6〉 앞으로의 한일 관계[64]



이와 같이 한일 양국민의 반수 이상이 좋은 한일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일본 측에서 본 한일공동선언 이후의 문화·인적 분야에서의 교류는 일본에서 한국의 영화·드라마·K팝의 순으로 수용되면서 확실하게 진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관계에서 구고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일본인의 대한 친근감의 악화를 저하시키는 것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적

빅터 차 『적대적 제휴: 한미일 삼각안보관계』 유히카쿠(有斐閣), 2003년

권용석 『「한류」와 「일류」~문화에서부터 읽는 한일 신시대』 일본방송출판협회, 2010년

정대균 『한국의 이미지—전후 일본인의 인국관 증포판』 중앙공롱신사, 2010년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K·POP★GIRLS』 닛케이BP사, 2010년

·논문 등

이시다 사에코 「한류붐의 다양한 이야기꾼—타자표상과 월경하는 문화」 이시다 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 『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 미네르바 서방, 2007년

이지민 「신문에서 보문 「욘사마」 침투현상—호칭의 정착과 「아줌마 팬」 이라는 존재」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이와부치 고이치 「한류가 「재일한국인」과 만났을 때—트랜스내셔널·미디어 교통과 로컬 다문화 정치의 교착」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오코노기 마사오 「100년째에 찾아온 기회－한일의 「성숙한 파트너십」 『외교포럼』 2009년 9월호, 2009년

기미야 마사시 「외국연구로써의 한국연구」 『현대한국조선연구』 제4호, 2004년

김현미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의 수용과 「팬의식」의 형성」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구라타 히데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정치·국제관계」 『현재 한국 조선연구』 창간호, 2001년

구라미치 가즈오 「전후 한일관계의 변천과 그 특징」 『요코하마시립대학논총 인문과학계열』 Vol.59 No.3, 2008년

고노 케이·하라 미와코 「한일을 둘러싼 현재·과거·미래－한일시민의식조사에서」 NHK방송문화연구소 『방송연구와 조사』 2010년 11월

사카이 토오루 「대만에서의 한류—한류의 발상지·대만」 이시다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黃盛彬「한류의 저력, 그 언설」 이시다 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모리 요시타카「『겨울연가』와 능동적 팬의 문화실천」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이동후「리메이크의 문화적 전력—『야마토나데시코』와 『요조숙녀』의 번안의 사례」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양인실「또 하나의 한류—한국 영화 속의 「재일교포」상」 이시다 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양극명 「아시아의 방정식? 한일 드라마 비교」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신문·잡지 등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일본경제신문, 닛케이유통신문, 키네마준보, 넷케이 TRENDY

---

[1] 전후의 한일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정대균은일본의 조선통치가 종연한 1945년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까지를 “무관심·피관심의 시기”, 1965년부터 1983년 즈음의 한국붐까지를 “정치적 관심의 시기”, 1984년부터 한일공동선언이 서명되는 1998년까지를 “문화적 관심의 시기”, 1998년 이후 현재까지를 “한류의 시기”라고 구분하고 있다.(정대균 『한국의 이미지－전후 일본인의 인국관 증보판』중앙공론신사, 2010년) 또한 구라모치 가즈오는 1945년부터 1960년을 “대립과 반목”의 시기, 1961년부터 1965년을 “타협에 의한 국교정상화”의 시기, 1966년부터 1982년을 “경제관계에서의 긴밀화와 외교관계에서의 갈등”의 시기, 1983년부터 97년까지를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갈등”의 시기, 그리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를 “동북아시아에서의 선진국간 관계의 형성”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라모치 가즈오 「전후 한일관계의 변천과 그 특징」『요코하마 시립대학 논층 인문과학계열』Vol.59 No.3, 2008년)
[2] 오코노기 마사오 「100년째에 찾아온 기회－한일의 「성숙한 파트너십」『외교포럼』2009년 9월호, 2009년
[3] 구라타 히데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정치·국제관계」『현재 한국 조선연구』창간호, 2001년
[4] 빅터 차 『적대적 제휴: 한미일 삼각안보관계』유히카쿠(有斐閣), 2003년
[5] 기미야 마사시 「외국연구로써의 한국연구」『현대한국조선연구』제4호, 2004년
[6] 아시히신문 1998년 10월 8일 조간
[7] 아사히신문 2001년 7월 18일 석간
[8] 아사히신문 2001년 7월 19일 조간
[9] 사카이 토오루 「대만에서의 한류—한류의 발상지·대만」 이시다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10] 양극명 「아시아의 방정식? 한일 드라마 비교」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11] 이시다 사에코「한류붐의 다양한 이야기꾼—타자표상과 월경하는 문화」이시다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또한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 「너무 세다, 한류 골프 여자 세계 탑10에 5명」(아사히신문 2010년 12월 12일 조간), 「[학력고]변혁의 시도 (2) 초등학생도 유학 한류 교육」(요미우리신문 2010년 10월 28일 조간)과 같은 사용법을 볼 수 있다.
[12] 黃盛彬「한류의 저력, 그 언설」 이시다 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13] 黃盛彬, 2007년. 상기 논문
[14] 이와부치 고이치「한류가 「재일한국인」과 만났을 때—트랜스내셔널·미디어 교통과 로컬 다문화 정치의 교착」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양극명, 2004. 상기논문

[15] 김현미「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의 수용과 「팬의식」의 형성」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16] 이동후「리메이크의 문화적 전력—『야마토나데시코』와 『요조숙녀』의 번안의 사례」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17] 권용석『「한류」와 「일류」~문화에서부터 읽는 한일 신시대』일본방송출판협회, 2010년
[18] 양인실「또 하나의 한류—한국 영화 속의 「재일교포」상」 이시다 사에코·기무라 칸·야마나카 치에편『포스트 한류의 미디어 사회학』미네르바 서방, 2007년
[19] 권용석, 2010년. 상기 서적
[20] 관객동원수에 관해서는 몇까지 설이 있다. 예를 들어, 권·2010년. 상기 서적에는 130만명, 양인실·2007년. 상기 논문에는 140만 명이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사히신문 2001년 7월 11일 조간을 참조하여 120만 명이라고 했다.
[21] 일반사단법인일본영화제작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저자 작성, 과거 흥행수입 상위작품 흥행수입 10억엔 이상 프로그램 (2000년~2014년), http://www.eiren.org/index.html (최종 접속: 2015년 8월 10일)
[22] 서양 영화 중 흥행 수입 10억엔을 넘는 것은 연간 18~39작품(2000년~2014년)이다.
[23] 넷케이유통신문·영화 랭킹(흥행통신사 조사)에서 필자 작성, 2015년 8월 23일 현재까지
[24] 사단법인외국영화수입배급협회 홈페이지에서 필자 작성, 외국영화 개황 나라별 일람표(2005년~2014년), http://www.gaihai.jp/index.html (최종 접속: 2015년 8월 10일)
[25] KOFIC·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역대박스오피스(공식통계 기준) http://www.kobis.or.kr/ (최종접속: 2015년8월24일) 한국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명 이상 동원한 것에 대해 기술. 제목은 일본공개시의 것(번역판 제목은 원제목). 데이터는 2014년 개봉까지.
[26] 매일신문 2010년 10월 18일 조간
[27] 2010년 3월 방송종료.
[28] 『키네마준보』 2004년 6월 상순호
[29]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30] 아사히신문 2004년 12월 26일 조간
[31] 아사히신문 2008년 6월 23일 석간
[32] 아사히신문 2004년 12월 4일 조간. 또한 넷케이유통신문의 히트상품 랭킹에서는 「한류」가 탑이었다. (닛케이유통신문 2004년 12월 8일)
[33] 아사히신문 텔레비전 편성표에서 필자 작성
[34] 스포트라이트는 금요일 22:00~22:43, 이산, 동이, 해를 품은 달은 일요일 23:~24:00, 시크릿 가든은 수요일 24:25~25:25 방송을 기본으로 했었다.
[35] 니혼TV 홈페이지 드라마틱에서 필자 작성. 한류에서 필자 작성, http://www.ntv.co.jp/drahan/ (최종 접속: 2015년 8월 24일)
[36] 후지TV 홈페이지 드라마에서 필자 작성, http://www.fujitv.co.jp/drama/index.html (최종 접속: 2010년 11월 21일)
[37] 아사히신문 텔레비전 편성표에서 필자 작성. 프로그램 개편의 영향을 잘 안받는 8월의 1-7일을 샘플로 했다. 작품 수는 동일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로 최종회를 맞이하여 새 드라마로 전환되는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1작품으로 셌다. 방송시간은 1회분 방송될 때마다 1카운트로 하여 주 5회 방송이 있는 경우는 5라고 셌다.
[38] TV도쿄의 점심시간 방송은 한국드라마를 전문으로 방송할것을 명확하게 한 시간대는 아니기에 <드라마·자료 1> 및 <드라마·자료 3>에서 제외했다. 또한 TV도쿄·런치채널 내의 한국드라마는, 기본방송시간이 평일 12:35-13:30이었다.
[39] TBS 홈페이지 한류 셀렉트. http://www.tbs.co.jp/hanryu-select/ (최종 접속: 2015년 8월 25일) 아사히신문 텔레비전 편성표에서 필자 작성. 정식으로 한류 셀렉트라는 명칭이 생기는 이전 방송작품에 관해서도 게재.
[40] 후지TV 홈페이지 한류α http://www.fujitv.co.jp/b_hp/hanryu/index.html (최종 접속: 2010년 12월 23일) 아사히신문 텔레비전 편성표에서 필자 작성
[41] 아사히신문 2015년 6월 22일 조간. 아사히신문과 동아일보의 공동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한다. 1위는 박근혜대통령(21%), 3위 이하 김연아(7%), 김대중(5%), 최지우였다. 또한 2010년의 동조사

에서는 1위의 배용준 이하, 2위 김연아(11%), 3위 김대중(10%), 4위 최지우(5), 이병헌(5%), 6위 이명박(2%)가 뒤를 이었다(아사히신문 2010년 6월 10일 조간). 2010년에 NHK와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와, 1위 배용준(21%), 2위 김대중(8%), 3위 이명박(7%), 4위 최지우(4%), 5위 이병헌(4%), 6위 김연아(3%), 7위 동방신기(3%), 8위 박지성(2%)였다. 한편 한국인이 일본인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1위 이토히로부미(21%), 2위 고이즈미 준이치로(10%), 3위 아사다 마오(8%), 4위 이치로(6%), 5위 도요토미 히데요시(6%)였다. (고노 케이·하라 미와코 「한일을 둘러싼 현재·과거·미래－한일시민의식조사에서」 NHK방송문화연구소 『방송연구와 조사』 2010년 11월)

[42] 관동지구의 경우, 통상 발표되는 세대시청률 1%=17만 6천세대이다. 비디오리서치 홈페이지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http://www.videor.co.jp/rating/wh/13.htm (최종 접속: 2010년 11월 22일)

[43] 고노·하라, 2010년. 상기 논문. 한국에 대한 정보원은 텔레비전(지상파)가 84%로 1위. 이하 신문 35%, 가족·친구·지인의 이야기 12%, 인터넷 11%, 잡지나 주간지(만화를 제외) 10%였다. 또한, 한국 관련하여 본적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 상위 5위는 성별·세대를 상관없이 드라마와 뉴스방송이 상위를 차지하여 드라마는 남자 60대 이상(뉴스방송 44%, 드라마 37%)를 제외하고 1위였다. (남 20·30대 (드라마 48%, 뉴스방송 40%), 남 40·50대 (순서대로 47%, 45%), 여 20·30대 (65%, 35%), 여 40·50대 (70%, 35%), 여 60대 이상 (52%, 38%)

[44] 이성애 개인의 수상은 아니며 도시바EMI㈜ 「엥카의 원류를 더듬다(이성애)」로써 수상

[45] ORICON STYLE 홈페이지·오리콘 연예인 사전에서 필자 작성, http://www.oricon.co.jp/ (최종 접속: 2015년 8월 30일)

[46] ORICON STYLE 홈페이지·오리콘 연예인 사전에서 필자 작성, http://www.oricon.co.jp/ (최종 접속: 2015년 8월 30일). 해당 가수의 최고위 곡에 대해 게재하여 동순위에 복수의 곡이 랭크인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해당 순위를 획득한 곡을 기술.

[47] 중앙일보 일본어판 2009년 8월 1일 배포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8673&servcode=700&sectcode=750 (최종 접속: 2010년 11월 21일)

[48] ORICON STYLE 홈페이지·오리콘 연예인 사전에서 필자 작성, http://www.oricon.co.jp/ (최종 접속: 2015년 8월 29일)

[49] 한국의 2004년의 음악 매출 총액은 일본의 연간 CD 매출(약 4000억엔)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黃盛彬, 2007년. 상기 논문)

[50]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K·POP★GIRLS』 닛케이BP사, 2010년

[51] 닛케이 TRENDY, 2010년 8월호.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K·POP★GIRLS』 닛케이BP사, 2010년.

[52] ORICON STYLE 홈페이지 「[연간 랭킹] 신인 세일즈 1, 2위는 KARA&소녀시대 K·POP세가 석권」, http://www.oricon.co.jp/news/confidence/83093/full/ (최종 접속: 2011년 1월 1일)

[53] 이지민 「신문에서 보문 「욘사마」 침투현상—호칭의 정착과 「아줌마 팬」이라는 존재」 모리 요시타카편『일식 한류—『겨울연가』와 한일 대중문화의 현재』세리카 서방, 2004년

[54] 닛케이 TRENDY, 2010년 8월호. 2010년 12월호.

[55] J·CAST 뉴스 2010년 9월 17일 배포 http://www.j-cast.com/2010/09/17076254.html?p=all (최종 접속: 2010년 11월 21일)

[56] 방일 한국인 수는 JNTO, 방한 일본인 수는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각각 참조했다.

[57] 일본경제신문 2009년 3월 30일 조간

[58] 199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Foreign Exchange Rates Historical Search 12 Noon Buying Rate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홈페이지)에서 필자 작성. http://www.newyorkfed.org/markets/fxrates/historical/home.cfm (최종 접속: 2015년 8월 30일) 그래프는 1엔이 몇 원인지를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엔고원저.

[59] 일본국내각부 홈페이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한국에 대한 친근감(내각부대신 관방정부 공보실 2014년 10월)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gaiko/2-1.html (최종 접속: 2015년 8월 26일). 또한, 2010년의 아사히신문과 동아일보사의 공동여론조사에는 “한국을 어느 정도, 가까이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꽤 가까이 느낀다” “어느 정도 가까이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합은 55%, “별로 가까이 느끼지 않는다” “전혀 가까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합은 44%였다. (아사히신문 2010년 6월 10일 조간), 또한 5년 후·2015년 동조사에서는 “꽤 가까이

느낀다” “어느 정도 가까이 느낀다”고 답한 사람의 합은 28%, “별로 가까이 느끼지 않는다” “전혀 가까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합은 67%였다. (아사히신문 2015년 6월 22일 조간)

[60] 일본국내각부 홈페이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내각부대신 관방정부 공보실 2009년 10월·2010년 10월·2013년 10월·2014년 10월)에서 필자 작성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gaiko/index.html (최종 접속: 2015년 8월 26일). 2014년·2010년의 조사가 없었던 나라는 각각 2013년·2009년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또한 국체적인 나라 명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유럽제국(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대양주 제국(호주, 뉴질랜드 등), 동남아시아제국(태국, 인도네시아 등), 중남미·카리브 제국(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등), 아프리카 제국(남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나라의 예가 제시돼있다.

[61] 고노·하라, 2010년. 상기 논문 2개식 회답

[6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언론NPO 홈페이지 제3회 한일공동여론조사 결과 http://www.genron-npo.net/world/archives/5646.html (최종 접속: 2015년 8월 30일)

[63] 일본국내각부 홈페이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현재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내각부대신 관방정부 공보실 2014년 10월)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gaiko/2-1.html (최종접속: 2015년 8월 26일)

[64] 아사히신문 2015년 6월 22일 조간